

2024년 1월 시청자평가원 활동실적

방송사명(법인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1. 회의 개최

o 일시 및 참석인원

일 시	참 석 인 원		
	시청자평가원	시청자위원회	방송사측
-	-	-	-

2.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운영 실적

프로그램명	편성시간	편성시간 변경
바로보는TV 옴부즈맨	본방송 매주 일요일 03:40~04:10 (재방송 매주 월 00:20~00:50)	-

o 방송현황

※ 프로그램 제목과 평가원 진술 주제를 3줄 이내로 기술

평가원명	방송일	방송 주요 내용	비 고
박세진	1/7	[뉴스포커스]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반복되는 '정치 테러' 왜 [뉴스초점] 김정은, '남북 근본적 전환' 선언..."적대적 국가관계"	
김홍태	1/14	[토요와이드]증차만이 해답?...소요 시간 줄일 인프라 구축 절실 [뉴스1번지] 태영 890억원 입금완료...추가자구안 이르면 오늘 발표	
안지연	1/21	[뉴스워치] AI에 콘텐츠 쏟아지는데...복잡해지는 저작권 논란 [뉴스 10] '암표와의 전쟁' 직접 뛰어든 가요계..."관련법 제정 시급"	
임윤주	1/28	[뉴스프라임] "육아 휴직 확대"."두 자녀 시 임대주택"...실효성은? [뉴스센터]겨울철 방치된 전동킥보드...지자체 관리 권한은 아직	

3. 시청자평가원 변동사항 '변동사항 없음'

구 분	성 명	전 · 현직	평가원 선임일	비 고 (변경사유 등)
활동	김홍태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변호사	2018. 06. 28	-
활동	임윤주	이화여대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연구소 연구원	2021. 11. 28	-
활동	안지연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2023. 01. 31	-
활동	박세진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정보사회미디어학과 조교수	2023. 05. 31	-

붙임 : 1. 평가원 진술 및 답변내용 1부.

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1부.

[붙임1]

<평가원 진술 및 방송사측 답변 내용>

방송일시	평가원명	평가원 진술내용	답변내용
2024 1/7(일)	박세진	지난 12월 28일 연합뉴스 TV는 국방부가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서 우리 영토인 독도가 '영토분쟁' 지역이라는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기술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교재에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이들 국가는 다오위다오,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이라고 기술되었는데 이는 "독도는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 독도에 대한 영토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과 다르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국방부가 본래	연합뉴스TV는 해당 논란을 소개하면서 교재에 나와 있는 표현을 문구 그대로 전했습니다. 국방부의 해명 역시 리포트에 별도로 반영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뒤 대통령이 직접 질책을 했고, 여당 대표에게서도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잘못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국방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교재 회수 및 감사 실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보도가 나오면 해당 부처가 반박

		의 취지와 다르게 해석되었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내용을 보고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질책하자 교재를 전량 회수해 보완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월 3일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의원시절 독도 관련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연합뉴스TV는 신 장관이 지난해 3월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 한일 간에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한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에 대해 신 장관이 입장 자료를 내고 해당 표현이 "일본이 영토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기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독도 관련 문제는 한일관계에 있어 매우 민감한 이슈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특히 최근 일본이 쓰나미 경보를 내리면서 독도를 자국 영토처럼 포함해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 연합뉴스TV가 일련의 보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독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방부 교재의 독도관련 표현에 대해서는 보다 중립적으로 보도했으면 바람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독도가 영토 분쟁지역이라는 일본의 주장을 교재에 기술했다면 잘못된 것이지만 SNS 개시글에 대한 신 장관의 해명처럼 일본인 영토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양측의 입장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거나 해명하는 양상과 달리, 이번 사안은 국방부가 곧바로 잘못을 시인하고 조치에 나섰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과 관련한 보도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이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안이든 양측 입장을 중립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은 계속 새기겠습니다.
2024 1/14(일)	김홍태	지난 6일 토요와이드에서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과 관련해 채권단과 금융당국	위원님의 말씀대로 태영그룹 사태는 부동산 프로

		이 태영 측에 실효성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압박에 나섰다 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태영그룹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원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9일 오전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중 잔여분 890억원의 입금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태영그룹이 내놓은 4가지 자구안 중 첫 번째 단계인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의 태영건설 지분관계자들의 입장을 좀 더 들여다봤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영건설 사태는 아직도 진행중이므로 향후 보도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젝트 파이낸싱(PF)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의미가 커서 연합뉴스TV도 다양한 후속 보도를 했습니다. 태영건설이 자구책과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도 생방송으로 연결하는 등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태영그룹 자구안의 실효성과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좀 더 들여다봤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영건설 사태는 아직도 진행중이므로 향후 보도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	안지연	인공지능이 고도화면서 사용범위도 확	인공지능 시는 최근 모든

1/21(일)	대되고 있습니다. 개발자들에게는 기술 개발로 인한 이익을 제공하고 콘텐츠 이용자들에게는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정작 콘텐츠 창작자는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빈번하게 나오는데요, 연합뉴스TV는 지난 12일 뉴스워치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뤘습니다. 아울러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의 개발사 오픈AI가 저작권 관련 줄 소송을 당해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 창작이 가능한데요,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는 만큼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큰 만큼 이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보도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뉴스 콘텐츠 저작권 이슈에 주목하면서 네이버 제휴 약관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담아 생성형 인공지능의 양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어떤 부분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지를 짚어주었다면 시청자들의 충분한 이해를 도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웹툰이나 소설 등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 제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AI와 저작권 보호에 대한 문제가 빈번하게 대두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 내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떤 논의가 되고 있는지도 함께 설명해주었다면 시	생활 및 산업 영역에서 화두입니다. 연합뉴스TV는 오픈AI가 저작권 관련 줄 소송을 당한 것을 계기로 AI와 저작권 문제를 조명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CES 취재 등을 통해서도 AI 산업을 분석했고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문제점도 파헤치기도 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처럼 생성형 인공지능의 문제점을 좀 더 세밀하게 파헤치고 AI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해결책과 창작자 보호 대책을 전문가 분석 등을 통해 제시해줬더라면 시청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인공지능의 웹소설이나 웹툰 등 기존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점도 유의해 앞으로 제작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

2024 1/28(일)	임윤주	청자들이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후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달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이번 겨울에는 눈이 꽤 여러 번 내렸는데요. 미끄러움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에 제설용 염화칼슘을 뿌리는데요. 관련하여 보도한 <뉴스리뷰>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눈 예보에 대비해 서울 전역 차도와 인도에 선제적으로 뿌려진 제설용 염화칼슘 양이 1,000여 톤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염화칼슘은 겨울철 도로에 쌓인 눈을 효과적으로 녹일 수 있지만, 철의 부식을 일으켜 차량을 망가뜨리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눈이 내린 날이 많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여러 측면에서 설명하고, 정책에서의 빈틈을 지적할 뿐 아니라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 매우 짜임새 있는 보도였습니다. 다만, 일반 대중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수치를 전달할 시에는 비교가 가능한 과거 사례나 구체적인 설명이 덧붙여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 초반에 등장한 ‘서울 전역에 뿌려진 천여톤’이라는 수치는 실제로 어느 정도의 양인지 쉽게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본 보도가 주요하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 ‘염화칼슘 양’의 문제였기 때문인데요. 과거 사용량과 비교하여 증가량을 설명하던지, 면적 대비 혹은 눈이 내린 양 대비 과도한 비율이었던	지적 감사합니다. 올해는 유독 눈이 자주, 많이 와서 사전제설 작업도 신속히 이뤄지고 있는데요. 염화칼슘 살포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판단해 관련 문제점들을 취재 후 보도했습니다. 다만 말씀대로 살포량 수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서 각각 제설작업을 해서 서울시 전체 통계를 잡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통상 눈이 얼마나 오랫동안 내렸는지, 그리고 적설량에 따라 투입되는 염화칼슘량이 달라지는데 통상 서울시내 전역에 눈이 올 경우 1천여톤을 상회하는 것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생활과 밀접한 날씨 관련 기사들은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인용 가능한 수치는 최대한 보도에 반영하겠습니다.
-----------------	-----	--	--

		지 등 수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	--	--	--

[붙임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 박세진 시청자평가원(24. 1. 07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632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부산 방문 일정 중 6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피습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야당의 당대표가 피습된 중대한 사건인 만큼 많은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먼저 관련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TV는 지난 1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일정으로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살펴보던 중 괴한으로부터 피습을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용의자가 이 대표 주변에서 지지자처럼 행동하던 중 사인을 요구하며 접근하다 소리하고 있던 흥기로 공격했다며, 해당 용의자가 현장에서 검거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날 오후와 저녁에는 피습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권의 입장을 전했고, 투나잇 이슈, 뉴스포커스 등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진단과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부산 피습 현장, 법원, 경찰서 등을 연결해 수사와 관련된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했습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다양한 보도를 통해 사건을 여러 방면에서 살펴본 보도였다고 평

가됩니다. 특히 현장을 연결해 취재기자, 목격자, 경찰 당국자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하며, 시청자에게 정확하고 빠르게 소식을 전했다는 점에서 적시성과 객관성을 갖춘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후송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짚어보지 않은 점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서울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보도에서 인용한 속초의료원 여한술 응급의학과장은 “이재명 대표 피습을 아쉽게 생각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이송과정에서 근본적인 특혜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 과장은 부산대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함에도 환자의 사정으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119 구급헬기를 이용했는데 이는 일반 시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료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표가 지역대학 병원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의정부 백병원 양성관 가정의학과장도 최고의 권역외상센터인 부산대 병원을 두고 권역외상센터가 없는 서울대 병원으로 간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비록 일부 의사들에 의해 제기된 주장이지만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피습과 관련한 보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합뉴스TV에서도 향후 현장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의사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또다른 문제점은 없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지난해 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간의 관계로 규정하고 대남 노선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말 원회의 발언을 신년사로 대신해왔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많은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는 북한의 통치 방향과 대남전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해마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는 중요한 외교안보 이슈인데요, 연합뉴스TV의 보도를 통해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TV는 북한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5일간, 당과 국가의 올해 사업을 결산하고,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남북관계가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전하며, 김 위원장이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과는 그 언제라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강대강, 정면승부의 대미·대남 투쟁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고압적이고 공세적인 초강경 정책을 실시하라며 강경한 대미·대남 원칙을 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분석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먼저 12월 31일 방송된 뉴스초점에서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내용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 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국가 관계로 지칭한 이유로 세가지를 주장했는데 첫 번째는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내부 결속을 다져 체제 유지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갈등을 야기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세 번째는 동북아시아 지역 내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 대미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1월 2일 뉴스포커스에서는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김 위원장의 발언을 통해 북한의 향후 도발 가능성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차 위원장은 비록 김 위원장의 발언 강도가 높긴 했지만 심각한 수준의 대남도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탄도미사일 발사, 초대형 핵탄두 개발 등의 전략적 도발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대남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시점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사안에 대한 시청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좋은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향후 북한의 도발 양상을 전망해보고, 도발 유형을 평가해봄으로써 국민들의 안보 경각심을 일깨워준 긍정적인 보도였습니다. 안보 관련 이슈는 일반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자 우리나라의 정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안보 이슈가 있을 경우 다각도의 분석 보도를 통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 연합뉴스TV의 노력이 지속되길 바라겠습니다. 국방부가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기술해 비판을 받았습니. 문제가 제기되자 국방부는 주변 국가들이 여러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인식한다는 기술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대통령이 질책하자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해 내용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의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2월 28일 연합뉴스 TV는 국방부가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서 우리 영토인 독도가 '영토분쟁' 지역이라는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기술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교재에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이들 국가는 다오위다오,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이라고 기술되었는데 이는 "독도는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 독도에 대한 영토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과 다르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국방부가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해석되었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내용을 보고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질책하자 교재를 전량 회수해 보완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월 3일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의원시절 독도 관련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연합뉴스TV는 신 장관이 지난해 3월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 한일 간에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한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에

대해 신 장관이 입장 자료를 내고 해당 표현이 "일본이 영토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기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독도 관련 문제는 한일관계에 있어 매우 민감한 이슈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특히 최근 일본이 쓰나미 경보를 내리면서 독도를 자국 영토처럼 포함해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 연합뉴스TV가 일련의 보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독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방부 교재의 독도관련 표현에 대해서는 보다 중립적으로 보도했으면 바람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독도가 영토 분쟁지역이라는 일본의 주장을 교재에 기술했다면 잘못된 것이지만 SNS 개시글에 대한 신 장관의 해명처럼 일본인 영토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양측의 입장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홍태 시청자평가원(24. 1. 14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633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지난 주 연합뉴스TV는, 입석금지 조치와 최근 설치한 노선 표시 안내판 관련 정류장에 버스가 한 대 밖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서 광역버스 정류장 승객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관련하여 태영 측의 실효성 있는 고강도 대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일 뉴스오늘에서는 경기도 일대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연이어 살해한 50대 이모 씨가 구속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주 첫 소식은 지난 6일 토요일에요. 정부와 지자체가 수도권 광역버스 대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버스 증차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이 커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수도권 광역버스의 출퇴근길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부 방안들이 시행 중이며, 기자가 직접 버스를 타보면서 방안의 문제점을 알아봤습니다.

입석 금지 조치 후 버스 증차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이는 경기도 전역에서 하루 50회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서울 도심의 광역버스 정류장에서는 승객들로 인해 인도를 지나기도 어려울 지경이며, 버스들이 엉키면서 접촉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시내버스 운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승객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는데요, 서울시가 최근 설치한 노선 표시 안내판은 정류장에 버스가 한 대밖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어 뒤이어 오는 버스들이 밀리고 있어서, 서울시는 표지판 운영 유예와 일부 광역버스 정류장 분산 등의 개선책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유정훈 교수는 버스 운행의 정시성 확보를 위해 버스 전용차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는 버스의 순환 속도를 높여 동일한 버스로도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중심의 정책을 위해서는 승용차 운전자들의 이해가 필요하며, 효율적인 버스 운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설득 없이는 '지옥 같은 출퇴근길'이 계속될 수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출퇴근 대한 해결책으로 '좌석 예약제'도 하나의 방안인데요, 이는 한 시간 전까지 예약이 가능하고 예약자만이 따로 줄을 설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일부 경기도민들은 광역버스 예약앱인 '미리(MiRi)' 앱을 통해 광역버스를 예약할 수 있으나, 이용률이 높은 정류장의 좌석은 대부분 전날부터 매진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은 이 앱의 존재조차 모르고, 예약하지 않은 승객들은 빈 좌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탑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빈 좌석이 10자리가 넘는 채로 운행되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혼용 탑승'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혼용 탑승은 예약률이 낮은 노선 위주로 이루어지며, 최대 이용 가능 인원은 2,000여 명에 불과하다고 추정합니다. 이는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 120만 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인데요, 세 시간 가량을 버스에서 보내기 위해 예약 앱을 수시로 확인하고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긴 줄에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이들의 일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위 보도는 수도권 광역버스 대란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도의 내용은 현실적인 문제와 그에 대한 대응책을 다루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과 시민들의 불편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는 점은 좋아 보입니다.

특히 현실적인 문제에 대하여 기자가 직접 버스를 타며 일부 방안의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접근은 시청자들에게 좀 더 현실적으로 와 닿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혼용 탑승 방안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었지만, 이 부분은 더 자세한 설명과 실제 진행되는 모습에 대하여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방안에 대하여 실행 폭을 넓힐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되었음 더 유익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시야를 갖고 교통 정책을 논의하는 멘트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앞으로 좀 더 나은 방향의 보도를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데이터와 통계를 가지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정부와 시민들의 노력이 제대로 실행되고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승객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정부 및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난 6일 토요일에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과 관련해 채권단과 금융당국이 태영 측에 실효성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압박에 나섰다

기자는 태영그룹과 채권단의 입장차가 가장 뚜렷한 부분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자금 중 890억원의 태영건설 지원 여부라고 보도했는데, 태영 측은 매각대금 1,549억원 전액을 태영건설에 지원하지 않고 890억원을 TY홀딩스 연대보증 채무를 갚는데 썼기에, 주요 채권단은 890억원은 이행되지 않은 걸로 보고 태영건설에 즉시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태영 측에 나머지 3가지 자구계획을 즉각 실행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지난 주말까지 실효성 있는 추가 자구책을 내라며 최후통첩을 날렸는데요. 오너가 사재 출연과 SBS 지분 매각, 그것도 어렵다면 TY홀딩스의 지분 활용 등이 추가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자구책이라고 전했습니다.

이후 보도에서는 태영그룹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원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9일 오전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중 잔여분 890억원의 입금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태영그룹이 내놓은 4가지 자구안 중 첫 번째 단계인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의 태영건설 지원이 이행됐는데, 태영그룹은 이밖에 에코비트 매각 추진 및 대금 지원과 블루윈 지분 담보 제공 및 매각 추진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보도는 태영그룹과 채권단 간의 금융 협상과 관련한 중요한 소식을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 9일 태영그룹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의 일부를 태영건설에 지원했다고 합니다. 워크아웃 협상의 진행 상황을 차근차근 전하고 있으며, 금융당국과 채권단 간의 신뢰 구축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도는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다양한 자구안에 대하여 다루고 있으며, 경제금융수장들의 역할과 주요 채권단 회의에 대한 언급도 있어서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태영그룹의 입장도 조금 더 언급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또한 태영그룹의 입장과 자구안 관련하여서, 추가 자구안의 실효성과 가능성에 대하여 좀 더 분석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도 상황 변화에 따른 신속한 업데이트 보도 그리고 관련 경제 시장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여 독자들에게 분명하고 의미있는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6일 토요일에는 경찰이 다방 업주 2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을 검거하고 여죄와 범행 동기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구속영장도 발부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경기도 고양시와 지난 4일 양주시의 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들을 연쇄적으로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강릉시에서 체포됐는데, 이모 씨는 경기 일산 서부경찰서로 압송되어 조사를 받고 있으며, 그는 “강해 보이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씨의 범행 동기 및 다른 범행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이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후 금품을 훔친 사실을 CCTV 영상으로 파악했습니다. 또한, 이씨가 경기 파주시의 한 치킨집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사실도 확인됐으나 성범죄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과거에도 여성 혼자 있는 다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전과 5범 이상인 이씨는 지난해 11

월 출소한 후 약 두 달 만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요, 경찰은 지문 감식을 통해 두 사건이 동일 인물의 소행임을 확인하고, 공개 수배 후 이씨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이씨는 양주 범행 후 서울로 이동한 뒤 강릉행 버스에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경기도 일대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연이어 살해한 50대의 이모 씨가 구속됐는데요, 법원에 출석한 이 씨는 죄송하다면서도 계획 범죄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범죄를 계획한 것은 아니라며, 강릉까지 도주한 이유는 무서워서라고 답했는데요, 법원은 이씨의 구속 여부를 검토한 끝에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씨가 살인과 함께 다방에서 수십만 원을 훔쳐 달아난 사실을 파악하고,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이 씨는 절도를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두 번째 범행 당시 처음부터 살인 의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씨는 전과 5범 이상으로, 술만 먹으면 강해 보이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요,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스스로 약하다고 느껴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이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발생한 다방 업주 살해 사건의 용의자, 50대 남성 이모 씨를 체포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데요, 이 사건은 피의자가 연쇄적으로 60대 여성 업주들을 살해하고 도주한 사건으로, 중한 내용의 사건입니다.

이모 씨가 “강해 보이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은 매우 이해적인 살인 동기요 보인는데요, 피의자 이모씨의 진술과 범행 동기에 대한 더 자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실제 이러한 진술은 그의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잘못된 권력의 표현 방식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CCTV 영상을 통해 피의자의 범행 후 금품을 훔치는 모습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범행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는데요, 이 사건이 살인 사건 외에도 다른 사건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피의자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던 전력이 있는 점은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도 짚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는 점도 언급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 **안지연 시청자평가원(24. 1. 21.방송): <바로보는 TV 음부즈맨 634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인공지능이 고도화면서 사용범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개발자들에게는 기술 개발로 인한 이익을 제공하고 콘텐츠 이용자들에게는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정작 콘텐츠 창작자는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

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빈번하게 나오는데요, 연합뉴스TV는 지난 12일 뉴스워치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신문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네이버 뉴스 제휴 약관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네이버 생성 인공지능 AI 모델인 ‘하이퍼클로바X’가 언론사의 동의 없이 뉴스 콘텐츠를 학습에 활용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관계 부처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미 포털이나 카페 등에서 사용자들이 퍼 나른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AI 학습에 수없이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어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저작권이나 초상권 등의 침해 소지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복잡한 신고 절차와 피해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마땅한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창작자들의 권리를 제한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다는 취지의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의 개발사 오픈AI가 저작권 관련 줄 소송을 당해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 창작이 가능한데요,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는 만큼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큰 만큼 이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보도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뉴스 콘텐츠 저작권 이슈에 주목하면서 네이버 제휴 약관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담아 생성형 인공지능의 양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어떤 부분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지를 짚어주었다면 시청자들의 충분한 이해를 도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웹툰이나 소설 등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 제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AI와 저작권 보호에 대한 문제가 빈번하게 대두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 해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떤 논의가 되고 있는지도 함께 설명해주었다면 시청자들이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후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달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최근 유명 가수의 콘서트나 인기 있는 공연의 티켓을 구하기가 어려운데요, 그 이유로는 암표를 꼽을 수 있습니다. 티켓을 예매하지 못했을 때 암표를 구매하는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팬데믹 이후 비대면을 통한 문화가 확산되면서 암표가 더욱 기승을 부려 관련 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

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먼저, 지난 13일 오전 10시 뉴스에서는 인기있는 공연 티켓 구입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상을 짚어봤습니다. 보도에서는 가수 장범준과 성시경의 콘서트에서 암표상으로 인해 공연을 보려는 일반 예매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에 주목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암표 거래가 더욱 활개를 치게 된 원인으로는 모바일 거래의 활성화를 꼽았고 암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 대리 티켓팅을 하는 대표적인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암표상을 처벌하는 적절한 법이 없어 기존 예매를 모두 취소하고 티켓 구매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하거나 암표 거래를 단속하는 등 가수들이 직접 나서서 불법 거래에 대한 방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연산업 관계자는 암표 구매자 및 판매자 모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의 필요성과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16일에는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 암표 사기 가해자의 실형 선고 소식을 다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직거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임영웅, 아이유, 블랙핑크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고 6억여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기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에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계속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연 뿐만 아니라 인기 스포츠의 대형 이벤트가 있을 때 관련 소식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암표 거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와서야 이에 대한 문제가 주목받게 된 이유는 보도에서 언급한 것처럼 온라인을 통한 예매의 활성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중, 장년층이 직접 티켓을 예매할 수 없어 웃돈을 주고 암표를 구매하는 사례가 증가했는데요, 대표적으로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티켓은 암표로 거래되는 가격으로 수백만 원 이상이 호가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보도에서는 타인을 대신해 일정 금액을 받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부정확한 방법으로 티켓을 취득하는 사례와 관련 사기에 대한 처벌 내용 등을 소개하면서 암표 거래의 현실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적절한 법안이 없어 부정 거래된 표에 대해 공연 관련자가 직접 나서서 처리하는 실정을 보여주어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올해 3월부터 공연법 개정으로 암표 거래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는 만큼 티켓 예매 방식과 암표 거래 처벌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소개해주었다면 관련 법의 취지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후 관련 내용을 보도할 때에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충분한 설명이 뒷받침되길 바랍니다.

가족들의 도움 없이는 병원에 가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를 위해 각 지자체

에서는 병원에 동행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1인 가구에 대해 혜택을 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이 외에도 서울시 생활권인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뉴스투나잇의 보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서울시의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소개했습니다. 가정 내에서 병원 동행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현재 이용 건수는 3만 건 이상으로 집계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병원안심동행 매니저들은 지난달에만 병원 접수와 수납을 하고 약국까지 함께 가는 등 1,500여 건의 통원을 도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반 진료 뿐만 아니라 해당 서비스는 일반 진료 뿐만 아니라 투석 치료부터 재활과 검사, 항암 치료, 서울시 1인 가구를 포함한 생활권이 서울인 타지역 주민들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병원 동행 서비스는 서울 소재의 병원에 대해서만 이용할 수 있고 중위소득 100%를 넘는 시민의 경우 이용료가 발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해 95% 이상 실질적 도움이 됐다는 만족도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의견과 수요를 반영해 예산을 더 확보할 계획이라는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의 건강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의료 복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는 서울시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제도를 알리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서비스 이용자와 실무자, 서울시 관계자 등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이 서비스의 장점을 드러냈는데요,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도 그래픽으로 제시해주어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도 말미에 이용료와 신청 방법은 기자의 목소리로만 전달되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보와 관련된 보도를 할 때 시청자들이 한눈에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그래픽을 활용해주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잠자는 교실을 깨우고 수업을 혁신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공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양한 수업 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생들의 수업 참여와 관련된 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이러한 노력이 무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17일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서는 교육부의 '교실 수업 혁신을 위한 고등학교 수업 유형별 학생 참여 실태조사' 자료를 근거로 고등학교 학생 4명 중 1명이 같은 반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자는 편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일반고는 28.6%, 자율고는 17.9%, 외국어고 13.1%, 과학고 14.3% 순으로 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를 통해 현재 고등학교 교실의 분위기를 알 수 있었는데, 교육부가 수업 혁신을

위해 직접 나서서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이유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에서는 설문조사의 취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조사의 배경 파악이 용이하지 않았다는 점과 단순히 설문조사 결과만을 인용해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 수업시간에 자는 이유와 학교 유형별로 통계 결과의 차이가 나는 이유 등을 전문가의 의견을 덧붙여 설명했다면 현상에 대한 이해와 이 조사의 추후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한 보도를 할 때에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우리사회가 적절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합니다.

● **임윤주 시청자평가원(24. 1. 28 방송) : <바로보는 TV 음부즈맨 635회-‘연합뉴스TV를 말한다’>**

새해를 맞아 사회적 문제들을 재점검하고 또 그에 걸맞은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연합뉴스TV에서는 저출생 관련 현황과 정책들에 대한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뉴스 프라임> 살펴보겠습니다.

뉴스 프라임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저출생 현황과 정치권이 내놓은 정책에 대해 논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는 미국 뉴욕타임스가 ‘흑사병’에 비유할 만큼 심각한데요, 이에 대해 연구위원은 그간 인구학을 공부하는 동안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수치로 매우 심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앵커는 이미 70대 이상 인구수가 20대 인구수를 앞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수가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 대가 무너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연구위원은 이러한 파장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숙련성과 혁신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대학 교육도 무너질 날이 머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도 그간 제도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해온 것도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성과로 이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연구위원은 단순히 비용 지원 차원의 문제며, 이미 몇 개의 정책만으로는 풀리는 문제가 아닌, 일자리, 주거, 사교육 등 구조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내놓은 정책안과 관련해서도, 인구 전담 부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보였는데요. 현재 저출산 문제는 복합적인 문제로, 한 부서에서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담에서 연구위원은 저출생 문제와 관련하여 구조적인 부분을 지속 지적했는데요. 대담 과정에서 해외 사례, 과거 사례 등 다양한 사례가 오가고, 정치권의 정책들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현 상황을 다루면서도 전문가가 일관된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용이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출산율 0.7명에 대해 설명할 때, 해당 수치를 실제 숫자에 대입해 설명하여 대담 초반에 시청자들의 집중력을 높이는 한편 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담에서 지적하였듯,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크지 않은데요. 이와 같은 배경 중 하나를 살펴본 <일요와이드>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육아휴직 관련 지원이 늘어나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성은 물론 남성 육아휴직자도 늘어나는 등 시민들의 의식도 변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업 규모별로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2년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의 약 70%는 300인 이상 대기업 소속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도 '육아휴직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95% 이상 나타났지만, 30인 이하 사업체에서는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육아휴직 지원을 확대하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의 사각지대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까지 고려한 육아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대담에서 지적하였던 '저출산의 구조적인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와 같은 보도였습니다. 본 보도에서 언급하였듯, 육아휴직 지원 확대에 있어, 그 기간이나 비용 지원 등과 같은 문제보다도 중소기업, 비정규직과 같이 사각지대에 놓인 문제점들이 더 시급한 부분들인데요. 말 그대로 '사각지대'에 주목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 사용 비율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좋은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겨울에는 눈이 꽤 여러 번 내렸는데요. 미끄러움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에 제설용 염화칼슘을 뿌리는데요. 관련하여 보도한 <뉴스리뷰>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눈 예보에 대비해 서울 전역 차도와 인도에 선제적으로 뿌려진 제설용 염화칼슘 양이 1,000여 톤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염화칼슘은 겨울철 도로에 쌓인 눈을 효과적으로 녹일 수 있지만, 철의 부식을 일으켜 차량을 망가뜨리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포장 상태가 나빠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제설제로 사용되는 염화칼슘과 염화나트륨을 콘크리트에 장시간 노출시키자 강도가 30%가량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도 제설제와 수분이 오랜 기간 침투해 손상된 콘크리트가 철근을 고정하는 힘이 떨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는 국토교통부의 '도로 제설 업무수행 요령'에 제설제 살포 상한선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살포되는 염화칼슘 양을 줄여야 하는데 지자체 입장에선 제설

작업 미진에 따른 민원을 피하려면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거나 도로에 열선을 까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비용이 문제입니다.

최근 눈이 내린 날이 많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여러 측면에서 설명하고, 정책에서의 빈틈을 지적할 뿐 아니라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 매우 짜임새 있는 보도였습니다.

다만, 일반 대중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수치를 전달할 시에는 비교가 가능한 과거 사례나 구체적인 설명이 덧붙여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 초반에 등장한 '서울 전역에 뿌려진 천여톤'이라는 수치는 실제로 어느 정도의 양인지 쉽게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본 보도가 주요하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 '염화칼슘 양'의 문제였기 때문인데요. 과거 사용량과 비교하여 증가량을 설명한다든지, 면적 대비 혹은 눈이 내린 양 대비 과도한 비율이었는지 등 수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겨울철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에 대해 보도한 <뉴스센터> 살펴보겠습니다.

비나 눈이 내리거나 날씨가 추워지면 키보드 이용량이 줄어, 겨울철에는 도로 곳곳에 키보드가 무분별하게 방치돼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 10명 중 9명은 무단 방치를 목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중 95.9%는 무단 방치로 인해 불편함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문제는 서울시가 전동키보드를 관리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안이 없어 전동키보드 대여사업자에게 안전관리를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각 지자체가 전동키보드 대여사업자를 합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전동 키보드 관련 이슈는 사실상 겨울철만의 문제는 아니나,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이용률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방치된 기기가 많아진다는 점에 주목하여 다시 한 번 해당 이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시의성을 갖춘 중요한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관련 법안은 없지만, 계류 중인 법률안이 있다는 점도 포함하여 정책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노인 무임승차제도'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보도한 <토요와이드>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했는데요. 인터뷰에 응한 65세 이상 시민들은 '65세 이상은 수입이 없기 때문에 지하철 요금도 큰 부담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 운영사들은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고령화로 유료 승차가 줄고 무임승차가 늘수록 운임 인상 필요성을 더 느낄 수 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도 찬반으로 나뉘는데요. 노인 복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여러 현실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보조금 운영은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완전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의견과 '갑작스러운 폐지는 어르신들의 활동에 제약이 되면서 심리사회적 우울감 등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으로 나뉩니다.

기자는,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안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관점을 고려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전달하며 보도를 마무리했습니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 폐지 여부와 관련한 논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민 사회는 물론 전문가 집단, 그리고 정치권에서 여러 차례 찬반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노인복지나 아니냐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나라 인구 비율 변화 등을 고려한 사회 구조적인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당 이슈는 현재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등장한 공약으로,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마지막으로 기자가 뉴스를 마무리함에 있어,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안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관점을 고려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전달했는데요. 본 보도는 해당 이슈가 찬반 의견으로 엇갈리는 양상을 전달하는 것인데, 노인 무임승차제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것처럼 마무리되어, 실제 전달하고자 했던 주제를 전함에 있어서는 어울리지는 않은 의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장면설명 2024년 1월 7일 03시 40분/ 박세진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일시/장면설명 2024년 1월 14일 03시 40분/ 김홍태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일시/장면설명 2024년 1월 21일 03시 40분/ 안지연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일시/장면설명 2024년 1월 28일 03시 40분/ 임윤주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